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중국군의 해양작전능력과 한국군의 과제

김민석*

I. 서론

II. 중국 해군력 건설 현황과 특징

1. 해군력 건설 현황
2. 주요 해군전력 건설 전망
3. 해군력 건설 추세 및 특징

III. 중국군의 해양작전 능력

1. 주요 함정 성능
2. 중국해군의 작전능력
3. 공군·2포병·우주자산의 해양전장 지원능력

IV. 중국군의 해양분쟁 양상과 대응방향

1. 예상되는 분쟁 양상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합의와 대응방향
-

* 해군 대령, 정치학 박사, 합동군사대학교 해군대학 해양전략전력학 처장,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이 글은 2013년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국고연구과제로 발주한 “중국해군의 군사혁신과 한국군의 과제”(연구자: 김민석)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I. 서론

최근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중국의 해양권익과 이를 보호할 능력 증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2년 11월 8일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는 중국의 해양력 건설 비전을 밝혔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해양자원을 탐사하고, 해양권리와 이익을 결연히 보호하기 위해 해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정책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표명한 것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를 승계한 신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도 2013년 6월 30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양권리와 이익 보호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해양개발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¹⁾

중국의 정치지도자가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상은 중국 정부가 과거 지상력 중심에서 해양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된다.²⁾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지향하는 중국으로서 해상을 통한 무역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중대한 목표일 것이다.³⁾ 더욱이 중국은 지상 국경이 대체로 안정된 반면 해상 국경은 불안정하며, 중국 입장에서 미국·일본 등 기존 강대국이 중국의 해양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해양으로 확장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렇지만 중국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국이 해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역사적 실패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다. 명나라 때 정화(鄭和, 1371~1434)의 ‘대(大) 항해’⁵⁾ 성과를 살리지 못하고 해금(海禁)정책을 채택한 것은 선진 문

1)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해권(海權)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5권 제 3호(2012년 9월), pp. 47~71.

2) 우스춘(Wu Shicun), “China’s Maritime Policy for Maintaining Maritime Peace and Order in Northeast Asia,” 제11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2013년 9월 6일), p. 72.

3)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 안보정책과 중미관계,” 『EAI 중국패널보고서』, No. 1(2012년 2월); 한우덕, “중동·아프리카 원유 수송위협 중국의 ‘인도양 루트’ 가시화,” *Issues & Analysis* (September 2013), pp. 56~57.

4) 19세기말 미국이 그러하였듯이 지상으로의 팽창을 마친 강대국은 해양으로 팽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5) A.D. 1405~1433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아라비아 반도-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까지 탐험하였다고 한다. <http://ko.wikipedia.org>.

물 도입과 내부 혁신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치욕의 시대(century of humiliation)’를 겪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1953년 마오쩌둥(毛澤東)은 뒤늦게 “제국주의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한 강력한 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⁶⁾ 1980년대에는 해군사령원⁷⁾이 된 류화칭(劉華清)⁸⁾이 ‘근해방어(offshore defense)’ 전략을 주창하면서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도 했다.

군사혁신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해군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해군력 현대화를 시작하였다.⁹⁾ 당시 중국 해군력의 급격한 증가는 첫째, 중소관계의 정상화로 인해 북방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이 감소했으며¹⁰⁾, 둘째, 이에 따라 1985년 육군병력 100만명을 감축함으로써 병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신규 전력 건설에 투입할 여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¹⁾ 물론 해군병력도 1987년 기준 35만명(해군항공단 34,000명, 해안방어부대 38,000명, 해병대 56,000명 포함)¹²⁾에서 2013년 25.5만명(잠수함부대, 수상함부대, 해군항공단, 연안방어부대, 해병대, 특수부대 포함)으로 감축되었다.¹³⁾

전통적으로 육군 위주의 군구조가 유지되어온 중국군이 육군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면서 해군력 건설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사상에 입각한 지상 전장 및 유격전 위주의 전

6)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pp. 3~4.

7) 중국해군의 수장으로서는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직위이다.

8) 류화칭(劉華清, 1916.10~2011.1.14.) 중국 군인 겸 정치인으로서 중국군 해군사령원, 제14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을 역임. 1930년 12월 중국공농홍군(홍군) 입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년 10월 1일) 이후 해군으로 복무. 해군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1992년). 1998년 3월 정계 은퇴. www.ko.wikipedia.org/wiki/

9) 당시 중국 정부의 제7~8차 신무기·장비 개발 5개년 계획에 신형함 건조 계획이 포함되었다.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10) 국방군사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276.

11) 중국군은 1985년 이후 2005년 12월까지 190만명을 감축하여 약 230만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추가 감축하여 약 200만명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육군은 병력감축과 함께 기계화·기동성 증진을 위해 기존 사단 편제를 여단 편제로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경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무렵 중국 7대 군구 지상군 병력의 1/3 규모는 신속대응군과 되었고, 각 사단은 대부분 기동형 여단으로 개편 완료되었다.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오늘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육군은 모듈형 여단 등 기동형 편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www.globalsecurity.org, “People’s Liberation Navy-History.”

13) *Military Balance 2013*, p. 289.

쟁수행방식에서 벗어나 방어선을 지상 국경을 넘어 바다로 확대시키면서, 군사고리를 분쟁 해역 등 국지적인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⁴⁾

즉, ‘지역적 적극방어전(regional active defensive warfare)’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군력 현대화를 포함한 군사혁신을 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04년 『중국의 국방(중국국방백서)』 작성에 참가한 중국 군사전문가 송위상이 “중국군은 과거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해·공군 등 작전반경이 넓은 전략적인 군사력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고 전한 데서 찾을 수 있다.¹⁵⁾

그러나 중국의 전쟁사상 전환과 대규모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는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현대적 해군력을 건설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해군은 1980년대 중반부터 류화칭 해군사령관 주창에 따라 근해적극방어 차원에서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착수하고, 호주 등으로부터 노후화된 항공모함을 도입하여 역설계와 모방을 시도해왔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1990년대 말까지는 중국군의 기계화와 정보화 수준은 대체로 낙후된 상태에 머물렀으며,¹⁶⁾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력과 산업기술력 발전을 바탕으로 군의 기계화 추진과 동시에 정보화를 병행함으로써 단시간 내 군사혁신을 단행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중국이 1986년부터 가입을 신청한 지 15년 만인 2001년 11월 10일 WTO에 가입한 것은¹⁷⁾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가 자유화됨으로써 중국의 군사장비 현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해군의 군사혁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시기는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4)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은 군사전략 사고에도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의 “적군을 깊숙이 유인한다”는 전략을 다시는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쟁지도개념이 채택되었다. 1988년 5월 당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이었던 자오쯔양(趙紫陽)은 북경에서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여 “신시기의 군사전략의 확립과 조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① 국지전과 군사충돌 대비, ② 기동 돌격부대 강화·건설, ③ 미래전과 장기 국방발전에 대한 예측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1998년), p. 276. 당시 중국 해군사령관 장련중(張連忠)은 “중국이 해양으로부터 습격과 공격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양의 방어중심을 강화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1998년), p. 277.

15) 『문화보』, 2005년 1월 28일; 『한겨레』, 2005년 1월 29일 보도 재인용.

16) 중국군은 1990년대 초부터 컴퓨터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7)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년 11월, pp. 1~2.

바야흐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지역강대국으로서 해양권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나설 준비가 된 것 같다. 최근 수년간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보여 온 공세적인 행동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중국의 해군력 건설을 양적 증가 측면에서만 관찰하고 놀랄 시기는 지난 것 같다. 말하자면 중국 해군전력의 성능이 어떤 수준이고, 해양전장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아울러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위협 시나리오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II장에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해군력 건설 현황을 정리하고, 2020년까지 미래를 전망한 후, 동 기간 중 주요 전력에 대한 비용 투입 규모와 척수 대비 톤수 증감 비교를 통해 전력증강 추세를 분석하여 해군력 건설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중국해군의 함형별 성능 평가와 함께 해군의 작전능력과 해양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제2포병·위성 능력을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분쟁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중국군의 해양전장 운영 양상을 추정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II. 중국 해군력 건설 현황과 특징

1. 해군력 건설 현황

가. 해군전력 개관

중국해군은 3개함대 약 25만 5천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해함대(靑島), 동해함대(寧波), 남해함대(湛江)로 구분,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해군항공대 2만 6천명, 연안방어부대 25,000명, 해병대 보병 2개 여단 총 1만 명으로 추정된다.¹⁸⁾

18) Bernard D. Cole,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napolis, MD: U.S. Naval Institute Press, 2010), p. 82; *Military Balance 2013*;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www.globalsecurity.org 등 종합.

2014년 현재 중국해군의 함정은 총 900여 척이며, 이 가운데 전략핵잠수함은 4척, 공격잠수함 61척(핵추진잠수함 5척 포함), 항공모함 1척, 주력전투함 76척(구축함 14척, 호위함 62척), 초계함 211척, 기뢰전함 47척, 상륙함 238척(LPD 2척, 상륙함 85척, 상륙정 151척), 지원함 205척이 포함되어 있다.¹⁹⁾

중국해군은 한국해군과는 달리 대규모 해상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함대별 2대의 항공사단(총 6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투능력이 있는 고정익 항공기는 341대로서, H-6 대형폭격기 30대,²⁰⁾ 요격기 72대, 대함폭격기 200대(폭격기 JH-7 계열 120대, 최신 기종인 J-10 28대, J-11 28대, Su-30MK2 24대 포함), 대잠초계기(SH-5) 4대, 전자정보수집기(Y-8JB 4대, Y-8X 3대) 7대, 조기경보통제기(Y-8J 4대, Y-8W 2대) 6대, 정찰기(HZ-5) 7대 등으로 구성된다. 헬리콥터는 총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잠헬기 44대(Ka-28 19대, 최신형 함재기 Z-9C 25대), 조기경보헬기(KA-31 9대, Z-8) 10대 이상, 정찰헬기(Z-8JH 4대, Z-8S 2대) 6대 등으로 구성된다.²¹⁾ 아울러 수량 미상의 중고도·저고도 무인정찰기(UAV)가 해상작전에 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해군의 해병대(‘해군육전대’)는 2개 여단 약 1만 명으로서 특수작전대대 1개, 특수상륙대대 1개, 정찰대대 1개, 전차대대 2개, 기계화보병대대 4개, 포병대대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장비는 상륙주정 372척, 야포 40문 이상, 휴대용 대공유도탄 등을 보유하고 있다.²²⁾ 이들은 남해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사시 상륙함을 이용하여 중국 전해역으로 이동하여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Military Balance 2013*;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www.globalsecurity.org 등 종합.

20) 신형 H-6K전폭기의 작전반경은 3,000km로 기존 H-6전폭기 작전반경(약 1,800km)에 비해 60% 확대되었으며, 6~7발의 장거리 대함순항미사일(공대함용 YJ-63) 탑재가 가능하다. YJ-63 순항미사일은 공중에서 발사 시 사거리 400km 이상으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며, 저고도 비행으로 탐지·요격이 곤란하다. YJ-63 탄두는 고폭탄으로 항모를 직접 타격하거나 전자기파 펄스탄으로 항모 C4I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崛起東亞」, 勤巴克顧問公司(대만, 2009), pp. 31~34.

21) *Military Balance 2013*, pp. 289~291.

22) www.globalsecurity.org.

나. 주요 해군전력 건설 현황

[전투함정]

• 잠수함

중국해군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수의 구형함을 소수의 현대적인 신형함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기 시작했다. 잠수함의 경우 1957년부터 도입해온 위스키급(Type 03) 20척을 1990년 이전에 모두 퇴역시켰다. 1960년대부터 도입해온 로미오급(Type 033) 90척은 1990년에 53척, 2000년에는 20척으로 줄어들었으며, 2013년 현재 4척이 남아 있으나 조만간 모두 퇴역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85년에 비해 2013년 현재의 잠수함 척수는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것이다.

• 구축함

1954년 도입한 안산급(Type 07)구축함 4척이 1990년대 초에 모두 퇴역하였고, 1960~70년대 도입한 초계함 11척, 어뢰정 214척, 초계정 275척이 1990년대 말까지 모두 퇴역하였다. 결국 2000년대 이전에는 척수 위주의 소형, 노후화된 함정이 대부분이었다면, 이후에는 급격한 척수 감소와 함께 함정을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중국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28척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루다급(Type 051, 3,730톤) 16척과 루후급(Type 052, 4,800톤) 2척은 2000년 이전에 건조한 것이다. 루다급을 16척 건조한 것은 요구성능이 어느 정도 충족된 함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루후급은 2척만 건조하고 더 이상 건조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건조된 구축함은 4종 11척으로서 루하이급(Type 051B, 6,600톤) 1척, 루저우급(Type 051C 7,100톤) 2척, 루양Ⅰ급(Type 052B 6,600톤) 2척, 루양Ⅱ급(Type 052C 7,000톤) 6척이다.²³⁾

• 장카이Ⅱ급 호위함과 허우베이급 유도탄정

루양Ⅱ급 이외의 양산에 성공한 최신예 함정으로는 장카이Ⅱ급 호위함과 허우베이급 유도탄정이 있다. 장카이Ⅱ급 호위함은 2011년까지 12척을 건조하였으며, 2020년까지 16척을 추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우베이급 유도탄정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0척을 건조하였으며, 향후 현 척수 유지

23) www.globalsecurity.org

가 예상된다. 장후급(Type 053) 호위함²⁴⁾은 1976년부터 2000년까지 30척이 건조되어 2005년 이후 점차 퇴역 중이며, 2020년까지는 대부분 퇴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륙함정

상륙함정 분야에서 중국해군은 대만해협 100해리(약 185km)를 횡단하여 병력과 장비를 수송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2000년 이후 2013년까지 유자오급(Type 071, 20,000톤) 대형상륙함(LPD) 1척, 신형 LPH(Type 081, 20,000톤)를 4척, 유팅Ⅱ급(Type 072 Ⅱ, 4,800톤) 중형상륙함(LST) 10척, 유팅Ⅲ급(Type 072 Ⅲ, 7,000톤) 중형상륙함(LST) 12척, 유하이/우후급(Type 074, 800톤) 상륙정(LSM) 20척을 확보하였다. 2013년 현재 중·대형상륙함은 총 39척, 상륙정은 305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륙전력은 대만 공격시 필요한 병력 수송 소요를 상당 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300해리(약 540km)²⁵⁾를 넘어서는 상륙수송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뢰전함정

기뢰전 분야에서 중국해군은 기뢰가 충분한 반면 기뢰를 부설하거나 소해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해군은 해저기뢰·계류기뢰·부유기뢰·자항기뢰·원격조종기뢰 등 다양한 형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중국해군은 기뢰성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해군은 기뢰부설함정 1척, 소해함정 92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2005년 및 2012년 도입한 우오장급(584톤) 2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1988년 이전에 건조된 노후 함정으로서,²⁶⁾ 잠수함·전투함에 비해 기뢰전함정 도입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신형 기뢰전함정 건조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항공모함]

‘랴오닝’(遼寧) 항모는 중국해군의 오랜 꿈이자 목표로서 중국해군 전력 건설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였다. 중국이 1998년 ‘바랴그’(Varyag)함을

24) HY-2 대함유도탄(CSSC-3 Seersucker), 대함·대공용 함포를 탑재하고 있으나 대공유도탄은 탑재하지 않고 있다.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p. 146.

25) 서해에서 한국-중국 육지 거리는 약 180~550km이다.

26)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마카오에서 해상카지노로 쓰겠다면서 고철가격에 해당하는 2,000만 달러에 사들일 당시만 해도 중국이 이것을 항모로 개조하리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소수였을 것이다. 중국은 ‘바랴그’ 항모를 13년간 개조하여, 2012년 9월 25일 정식으로 취역 후 동년 11월 26일 최초로 함재기 이착륙에 성공하였다.²⁷⁾

중국이 ‘랴오닝’ 항모 개조에 성공한 이유는 중국의 경제력과 산업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항모 확보를 추진하였다. 1985년에는 호주 퇴역 항모 멜버른함을 도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건조를 시도하였으나 1990년대 말까지는 기술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결국 1998년경 러시아 폐 항모 2척(민스크와 키예프, 42,000톤급) 도입과 함께 바랴그함 개조를 통해 항모를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역설계 방식으로 분석하여 설계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주요 해군전력 건설 전망

[전투함정]

향후 2020년까지 중국해군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전력은 다음과 같다. 루양Ⅲ급(Type 052D, 8,000톤) 차기 구축함의 선도함이 2014년까지 전력화될 것이며, 2015년까지 4척, 2020년까지 총 10척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함정은 총 12척 이상이 건조되어 루다급(Type 051, 3,730톤) 구축함(현 14척)을 대체할 것이다. 루양Ⅲ급은 구축함은 중국해군 최초로 다목적 수직미사일발사대(VLS)를 장착하여 대함순항미사일(ASCM), 대지순항미사일(LACM), 대공미사일(SAM), 장거리대잠로켓(ASROC)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아울러 12,000톤급 차차기 구축함(Type 055)을 2020년을 전후하여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호위함은 장카이Ⅱ급(Type 054, 4,300톤)을 2013년까지 총 12척, 2015년까지 총 19척, 2020년까지 총 26척을 확보하고, 경호위함으로서 징다오급(Type 056, 1,300톤)을 2015년까지 총 5척, 2020년까지 총 15척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도탄정은 허우베이급

27)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14.

28)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15.

(Type 022, 225톤)을 2013년까지 총 60척 확보하였으며, 향후 차기 유도탄 정으로서 보다 발전된 함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상륙함은 유자오급(Type 071, 20,000톤) 상륙수송함을 2015년까지 총 4척 확보하고, 이후에는 신형 상륙수송함(Type 081 LPH, 20,000톤)를 2015년까지 총 6척을 확보하며, LHA급(Type 08X, 45,000톤)을 2020년까지 총 3척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형상륙함(LST)으로 유틱Ⅲ급(Type 072 III, 7,000톤)를 2013년까지 총 12척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까지 총 29척, 2020년까지 총 25척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⁹⁾

[항공모함]

향후 중국의 자체 설계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다. 2015년부터 5년간 6~7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최대 6척 건조하여 2020년대 실전 배치할 전망이다. 설,³⁰⁾ 스키점프대가 아닌 함재기 사출기를 적용한 대형 항모를 건조 중이라는 설,³¹⁾ 다렌(大連) 조선소에서 스키점프대형 항모를 건조 중이라는 설,³²⁾ 자체 건조 신형 항모(80,000톤급) 1척, 2015년에 2척을 2020년에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 등 매우 다양하다.³³⁾ 다만 러시아 군사잡지는 중국이 라오닝 항모보다 큰 항모 총 6척을 건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항모 건조 경험 부족으로 2035년 이전에는 작업이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³⁴⁾

2013년 8월 29일 양위군(陽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라오닝함은 중국의 첫 항모지만 결코 유일한 항모는 아니다”³⁵⁾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항모를 건조하는 것은 확실시 된다. 다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구비한 항모일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2013년 미 국방부 장관실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6년 내에 중국해군 최초의 자체 건조 항모가 전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³⁶⁾

29)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

30) 『산케이신문』, 2010년 7월 27일.

31) *Foreign Policy*, 2013년 7월 27일.

32) 베이징TV · 전첨망(前瞻網) · 봉황망(鳳凰網); 『한국일보』, 2013년 9월 25일 재인용.

33) www.globalsecurity.org.

34) 대만중앙통신(CNA, 2013년 5월 2일; 연합뉴스, 2013년 5월 2일 재인용.

35) 『한국일보』, 2013년 9월 25일.

36)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14.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력, 세계 1~2위의 조선능력³⁷⁾을 구비한 점을 고려하면 양적으로는 항공모함 생산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바라그’ 항모 개조와 대형상륙함·구축함 자체 건조 경험, 그리고 1980년대부터 세계의 다양한 항공모함 함형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인 건조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국가자산에 대한 통제력과 상무정신, 그리고 당-군관계³⁸⁾를 감안하면 2020년까지 2~3척의 항모를 독자적으로 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³⁹⁾ 그 중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함정은 함재기 사출기와 핵추진기관을 구비한 대형 항모(80,000톤급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3. 해군력 건설 추세 및 특징

가. 해군력 건설 추세

중국은 1970년대 중반에 해·공군장비의 기본적인 국산화를 실현했고,⁴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함정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으나,⁴¹⁾ 그 수준은 구(舊)소련의 무기체계를 단순 모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경제력과 군사기술 제한으로 중요 기술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 중반 류화칭 해군사령원이 현대적인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현대적 첨단 기술이 반영된 함정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는 중국 해군력 건설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7) 일본 조선공업회, 『조선 관계자료』, 2010.

38)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어록이 계승되는 현실과 현재 중국 정부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의 역할(소위 ‘당-군관계’를 말함)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에는 군사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치제도에 녹아 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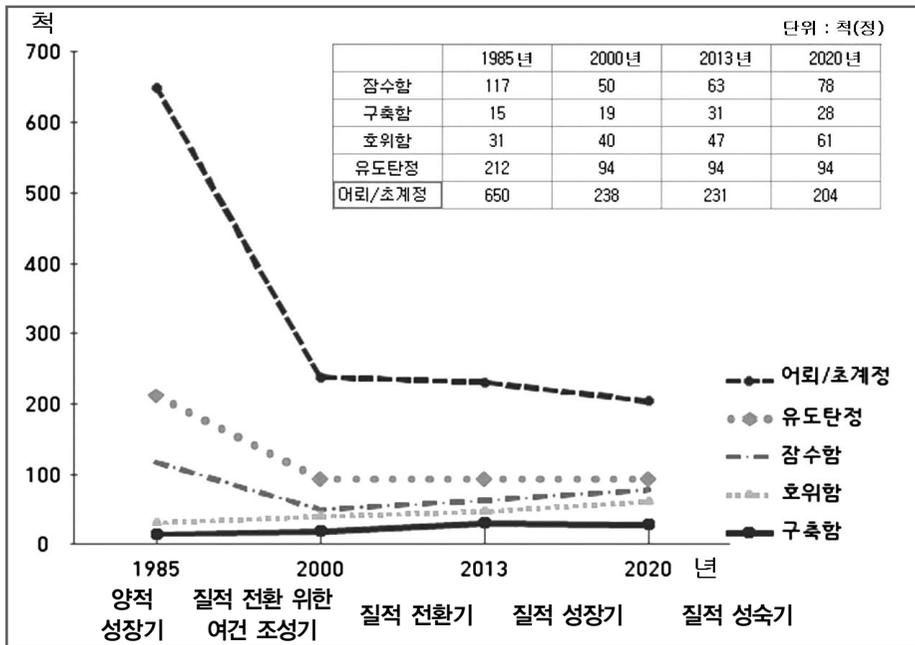
39) www.globalsecurity.org에서 제시된 전망을 참고하였다.

40) 국방과학연구소,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 개혁현황 및 주요 국가 국방과학기술공업 개람』, p. 6.

41) 중국의 해군함정 획득 방식의 변화 추세를 보면 1950년대에는 외국과의 합작생산 또는 해외도입이 대부분이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산과 해외도입이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當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下)』, p. 119; 하영애, 『중국 현대화와 국방정책』, p. 120 재인용.

중국해군의 주요 함정 척수 변화 추세를 근거로 하여 시기별로 전력 건설의 특징을 유추해보면, <표 1>에 나타나는 것처럼 1985년 이전까지는 “양적 성장기,” 1985~2000년 시기는 “질적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기,” 2000~2013년까지는 “질적 전환기,” 2014~2020까지는 “질적 성장기,” 2020년 이후는 “질적 성숙기”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해군이 수량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중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어느 정도로 좁히느냐 하는 것은 해양전장에서 실질적 능력 발휘와 역내 패권질서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1> 중국해군 주요 전투함정 척수 변화 추세와 전망⁴²⁾



나. 해군력 건설 특징

[2000년 이후 신형함정 160척 도입]

함정의 수명은 통상 30~40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대략 선령 15

42)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Warship”을 근거로 필자의 판단에 입각하여 분류하였다.

년 미만이라면 대체로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2000년대 초에 건조·도입된 함정은 대체로 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국해군은 2000년대 초부터 2013년까지 약 13년간 잠수함 38척과 전투함정 122척(상륙함·기뢰전함 등을 제외한 주력 함정) 총 160척을 자체 건조 또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전력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중국해군이 실전능력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주력함정의 선령이 대체로 젊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다.

<표 2> 2001년 이후 중국이 도입한 주요 잠수함·전투함정⁴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n급 SSBN 4척 • Qing급 SSB 1척 • Shang급 SSN 5척 • Kilo급 SS 12척 • Song급 SS 12척 • Yuan급 SS 8척+ <p style="text-align: center;">계 : 38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yang II급(052C형, 7,000톤) 등 구축함 14척 • Jinankai II급(054A형, 3,900톤) 등 호위함 17척 • Houbei급(022형, 220톤) 등 유도탄정 70척 • Haiqing급(037-IS, 478톤) 등 초계정 21척 <p style="text-align: center;">계 : 122척</p>
---	---

[잠수함 대형화]

현재 중국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65척 가운데 38척이 2001년 이후 도입된 것으로서,⁴⁴⁾ 잠수함의 성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2001년 이후 도입한 신형 잠수함 38척의 건조 비용을 추정해보면, 잠수함 건조 시 1톤당 1.5~2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⁴⁵⁾ 38척 약 146,400톤을 도입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21조 9,600억원에서 43조 9,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잠수함 크기 측면에서 보면, 총 잠수함 톤수는 1985년 213,500톤에서 2013년은 213,150톤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잠수함 총 척수는 1985년에 비해 2013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잠수함의 대형화로 원해작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43) *Military Balance 2013*;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www.globalsecurity.org 등 자료를 종합하였다.

44)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Warship"을 근거로 도출 및 판단하였다.

45) 한국해군 함정의 통상적인 건조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아래 전투함 건조비용도 동일 방식이다.

[전투함 대형화]

톤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5년 전투함정 수는 908척, 총 톤수는 233,085톤인데 비해 2013년 보유한 전투함정은 403척으로서, 척수로는 절반 이상이 감소한 반면 톤수는 387,606톤으로 62%가 증가하였다. 이는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전투함정의 대형화로 원해작전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2001년 이후 확보한 함정은 구축함 14척, 호위함 17척, 유도탄정 70척, 초계정 21척으로서 총 122척의 함정을 2001년 이후 도입하였다.⁴⁶⁾ 이를 비용으로 추정해보면, 전투함 건조시 1톤당 1~1.5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2001년 이후 도입한 전투함 122척 총 177,745톤을 건조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17조 7,745억원에서 26조 6,618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체생산 능력 강화]

주요 전력에 대한 해외 구매와 독자 생산 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 초 이후 도입된 잠수함 38척과 전투함 122척 중에서 러시아에서 도입한 Kilo급 잠수함 12척과 소브레멘니급 구축함 4척을 제외하면 13년간 149척을 중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평가해보면 2001년 이후 매년 약 12척을 생산해 온 셈이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것이다.

[해군 주요전력 건설에 전체 국방비의 약 10% 투입 추정]

함정 건조 비용 측면에서 보면, 2001년 이후 도입한 잠수함 건조비용과 전투함 건조비용 추정치를 합하면 총 39조 7,345억원에서 70조 6,218억원에 달한다.⁴⁷⁾ 이 비용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공표된 중국 국방비 전체를 누계한 605조 214억원(5,697억불)〈표 3〉⁴⁸⁾의 6.6~11.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46)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Warship"을 근거로 도출 및 판단하였다.

47) 중국의 함정 건조 비용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해군 함정 건조 예산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 이 비용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8) 기간 중 중국의 국방비 누계는 〈표 3〉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달러당 1,062원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2013년 보유한 함정은 2012년까지 투입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국방비 누계는 2012년까지 포함하였다. 중국 국방비는 연구자가 사용한 자료나 환율, 그리고 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 연도별 중국의 공식 국방비 현황⁴⁹⁾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국방비(억불)	170	200	223	250	302	351	449	572	705	780	780	915
증가율(%)	17.7	17.6	9.6	11.6	12.6	14.7	17.8	17.6	14.9	10.6	10.7	12.7
예산점유율(%)	8.1	7.7	7.7	7.7	7.2	7.4	7.5	7.2	6.4	6.3	6.3	6.0
GDP점유율(%)	1.4	1.6	1.4	1.3	1.3	1.3	1.5	1.7	1.4	1.4	1.4	1.4

여기에는 랴오닝 항모의 개조 비용, 2001년 이후 도입한 상륙함(대형·중형·소형) 66척, 정보수집·해양탐사함 29척, 군수지원함 5척, 그 외 척수 미상의 수송·지원·수리·예인 등 지원함정 건조 비용이 제외되었다. 아울러 중국해군의 탄약·유도탄을 포함한 모든 해군전력의 연구개발 및 획득 비용, 그리고 모든 병력·장비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순수 주력전투함·잠수함 건조 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주요전력에 대한 10% 내외의 투자비는 놀랄만한 규모이다.⁵⁰⁾ 특히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된 중국군 구조⁵¹⁾에서도 이처럼 해군력 증강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온 것은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중국해군은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주요 전투함정 신형화와 대형화를 위해 전체 국방비의 약 10%를 투입할 정도로 역점적으로 해군력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중국해군의 원해작전능력은 현저히 향상되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전투능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49) 중국 국방백서 및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중국의 국방비를 분석하여 보면, 최근 20년간 명목상 연평균 약 16%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발표액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규모이다.

50) 중국은 1950년대 핵무기 개발을 착수할 당시 이를 국방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과학기술비로 책정하여 별도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황병무, 『신중국군사론』, p. 125; 하영애, 『중국 현대화와 국방정책』, p. 75 재인용. 특히 중국이 공개하는 국방예산은 실제 투입하는 예산의 1/3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고려한다면 중국해군의 예산은 막대한 규모일 것이다. 중국 국방비와 해군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51) 중국해군은 총 255,000명으로서 전체 중국군 현역 2,285,000명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육군은 1,600,000명으로서 전체 병력의 70%이다. 참고로 공군은 30~33만, 제2포병은 10만, 그리고 무장경찰은 6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Ⅲ. 중국군의 해양작전 능력

오늘날 합동해양전장에서 작전능력은 해군 자체의 능력과 공군·탄도/장거리순항미사일·인공위성 등 지상에 기지를 둔 다양한 전력의 해양작전 지원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중국군은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외부세력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변국과의 분쟁 시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광대한 연안 또는 내륙 깊숙한 지역에서 발진하는 전력의 지상 기지 발진 전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해군의 해양작전 능력을 평가한다면 해군의 함형별 성능 평가와 함께 해군의 작전능력과 지상에서의 지원능력을 함께 살펴 봐야 할 것이다.

1. 주요 함정 성능

2000년대 이후 중국해군력의 비약적인 증강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 고유의 기술로 건조된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기타 소형함정의 성능도 향상되었다. 현재 중국해군 일부 함정은 해군전투기의 지원 없이도 자체 대공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아울러 함정의 대형화로 원해에서의 높은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대잠·대공전 장비와 무기체계 장착으로 인해 생존성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능력의 향상은 러시아로부터 기술도입,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 의혹, 그리고 일부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장비 도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⁵²⁾

가. 루양Ⅱ급 구축함

2000년대 초 이후 중국해군이 건조한 구축함 가운데 루양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2척 이내로 건조한 점이 특이한데, 요구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함정은 2척 이내로 생산을 종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루양Ⅱ급을 6척까

52) 잠정적으로 중국은 프랑스의 Crotale 방공체계와 Whitehead A244S 대잠어뢰 구매 가능성이 있다.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지 건조한 것은 요구성능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루양II급은 중국 최신 구축함으로서 대표성이 있으며, 성능을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형 이지스함이라고 일컬어지는 루양II급 구축함의 제원을 살펴보면, 2개의 개스터빈 추진기관과 2개의 디젤추진기관을 장착하여 최대속력은 29노트를 낼 수 있으며, 순항속력 15노트로 4,500해리를 항해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로는 중국해군의 최신형 함대함미사일 C-802(YJ-62)⁵³⁾ 8기, HHQ-9 대공미사일⁵⁴⁾ 48기(VLS 8셀), 100mm 함포 1문, 30mm 함포 2문, 어뢰발사관 2기(1기 3발),⁵⁵⁾ 4연장 로켓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탐색·사격통제용 장비로서 ESM/ECM이 가능한 NRJ-6A 전자전 장비, 대공탐색용 Type 517B Knife Rest 레이더,⁵⁶⁾ 대공탐색·사격통제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Type 346 Dragon Eye 3차원위상배열레이더,⁵⁷⁾ 대공/수상탐색용 Type 364 Seagull C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있다. 대잠탐색용 소나가 선체 앞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⁸⁾ 위성통신을 이용한 전투정보 data-link 체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미상이다.⁵⁹⁾ 함재헬기는 Z-9A 대잠헬기 2기 또는 Ka-28 Helix 1기를 탑재할 수 있다.

루양II급 구축함의 성능은 1999~2006년 기간 동안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4척의 소브레멘니급에 비해서 선체 외형상 스텔스성

53) 초기비행단계 GPS 유도, 종말비행단계 능동레이다호밍, 사정거리 280km(151nm), 속도 마하 0.8, 탄두중량 300kg.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p. 139.

54) 통제유도방식과 반능동(semi-active) 레이더 호밍 방식 병행, 사정거리 100km(54nm), 속도 마하 3, 탄두무게 90kg.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p. 139.

55) Yu-2/5/6 어뢰 6기 장착. 능동/수동 호밍, 사정거리 11km(5.9nm), 속도 40노트, 탄두무게 44kg.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p. 139.

56) 구소련의 P-8 Dolphin(Knife Rest)를 모방하여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대형/고고도 표적에 대한 탐지거리 300km(145nm)로 추정된다. www.harpoondatabases.com.

57) 중국이 구소련의 지상기지 레이더인 Zoo Park 체계의 일부분인 Iskra IL-220U(우크라이나에서 개발)를 모방하여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가 기술적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나 우크라이나는 부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해군의 AN/SPY-1 이지스레이더 기술을 도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탐지거리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100nm로 추정된다. 이 레이더체계는 특히 데이터 업데이트 비율의 신뢰성에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요구성능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www.harpoondatabases.com.

58) 중국해군 함정의 소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Luhu급(Type 052, 4,800톤)에 장착된 DUBV-23 소나는 선체부착형(능동탐색, 중간주파수 대역)과 예인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p. 140.

59) 중국해군함정의 data-link 체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Luhu급(Type 052, 4,800톤)에는 Thomson-CSF Tavitac action data automation이 장착되어 있다.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p. 140.

을 고려한 설계 등 더 진보된 형태이며, 대공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함포 등 무장의 사정거리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공·대함·대잠 표적 탐색의 정밀성과 신뢰성, 전자전 환경 하에서 탐지장비 신뢰성, C4I 기능, 데이터 링크체계 등의 성능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⁶⁰⁾ 중국해군은 대만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해군력에 비해 대부분의 군사기술 영역, 특히 대공방어와 감시정찰, C4I 측면에서 능력이 뒤떨어진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⁶¹⁾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의 경우 장비의 기술적 운용 교리·교범,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제도 등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오랜 운용 경험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나. 잠수함

중국해군 잠수함은 근해 500nm 내에서 절대적 제해권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해군 잠수함은 소음이 크고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시간 등 작전능력이 제한된다는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⁶²⁾ 목표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해군은 1950년대부터 잠수함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운용 기술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해군은 잠수함의 소음 과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킬로(Kilo)급 잠수함의 소음감소 기술과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도입 또는 모방하여 위안(Yuan)급을 개량한 신형잠수함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해군은 천해 수중환경에서 어뢰의 추적능력과 추진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수상함과 잠수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이동식 기만기와 어뢰요격어뢰 등 어뢰대항체계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0) 소브레멘니급에 장착된 대공탐색레이더 Top Plate(Fregat Mae-3) 3차원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500톤급 선박은 150km까지, 항공기는 최대 150km, 미사일은 최대 3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ww.deagel.com. 동시접촉표적 80개, 동시추적 표적 20개. www.en.wikipedia.org.

61) www.globalsecurity.org, "Military-China-Navy-Warship Modernization."

62) U.S.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pp. 21~23.

다. 항공모함

‘랴오닝’ 항모의 작전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선진국 전문가들은 ‘바라그’ 항모의 작전능력이 미국의 1/2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함재기 작전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다.⁶³⁾ 또한 함재기 사출장치가 없어 함재기가 자체 동력으로 이륙시 탑재중량 제한 및 연료 과다 소모로 함재기 작전 반경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J-15 함재기의 제원상 작전반경은 원형 모델인 러製 Su-33 함재기 작전 반경 1,500km와 유사한 범위이거나, 중국군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전투기 엔진 성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Su-3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이 점을 고려하면 ‘랴오닝’ 항모전투단 작전 반경은 탐지장비 및 함재기 능력 고려시 500km 내외로 추정되며,⁶⁵⁾ 통상 약 1,000km 이상으로 알려지는 미국 항모강습단의 작전반경에 비해 현저한 열세로 평가된다.⁶⁶⁾

‘랴오닝’ 항모와 함께 작전하는 수상전투함 성능이 전반적으로 해군 선진

63) 오카베 이사쿠(岡部 いさく) 저, 김기호 역, “미해군 7함대의 대(對)중국 작전계획,” 『세계의 함선』, 2012년 7월호; 오하라 본지(小原 凡司) 저, 지동욱 역, “중국항모에 제기되는 의문점,” 『세계의 함선』, (2013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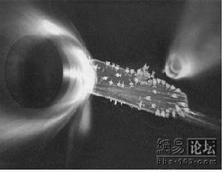
64) J-15 함재기는 무장탑재시 이륙능력 고려 연료적재량이 제한되고, 공중급유장치를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작전반경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Michael Glynn, “Examining Chinese Navy’s Shenyang J-15 Fighter Jet’s Ordnance and Fuel Capabilities,” *The Aviationist*, 2012년 12월 27일.

65) ‘랴오닝’ 항모전투단 작전반경 추정 근거는 ‘랴오닝’ 항모에 탑재된 Sea Eagle(S/C型) 3차원 대공 탐색레이더는 러製 Top-Plate(MR-760) 레이더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항공기는 최대 150km, 유도탄은 최대 3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SPY-1D AEGIS 레이더 탐지거리 약 1,000km 대비 1/6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www.deagel.com, www.en.wikipedia.org. Dragon Eye 3차원 다기능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약 185km(100nm)로서 美製 SPY-1D AEGIS 레이더 탐지거리 약 1,000km 대비 1/5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www.harpoondatabases.com. 아울러 ‘랴오닝’ 항모는 조기경보기를 탑재할 수 없어서 러製 Ka-31(작전범위 600km) 또는 자체개발 Z-8 조기경보헬기(작전시간 4h, 작전범위 1,020km)를 대공·대함 탐색용으로 대체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작전반경은 미국해군 항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www.en.wikipedia.org.

66) 연합뉴스, 2010년 11월 28일. F-35 함재기의 전투행동반경은 연료재보급 없이 690nm(약 1,277km)이며, 최근 항모 이착륙 시험비행에 성공한 X-47B와 같은 무인기는 연료재보급 없이 1,500nm(약 2,778km), 연료재보급시 3,000nm(약 5,556km, 50~100시간) 작전이 가능하다. Henry J. Hendrixn(USN CAPT, PH.D.), “At What Cost Carrier?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March 2013, p. 10; Thomas P. Ehrhard and Robert O. Work, *Range, Persistence, Stealth, and Networking: The Case for a Carrier-Based Unmanned-Combat Air System*,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CSBA (2008), p. 16. 따라서 미국 항모강습단의 작전반경은 곧 2,000km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 수준에 미달된다고 가정하면 이 항모전투단은 정찰감시위성·지상발진 조 기정보기·폭격기,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과 합동작전 하 운용될 것이라 고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항모전투단의 통상적인 작전 반경은 지상·공중· 우주에서 지원하는 전력의 작전능력과 미국·일본 등 상대방 군사력과의 기 술적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KJ-2000 AWACS	H-6 폭격기	DF-21D	ASBM
			
작전반경: 2,000km	작전반경: 2,500km	사정거리: 2,155km('10년)	사정거리: 3,200km('15년)

〈그림 1〉 중국 항모전투단에 대한 주요 지원 전력⁶⁷⁾

‘랴오닝’ 항모가 실질적인 작전능력을 구비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중국 해군은 현재 함재기 이착륙 및 운용 훈련과 무기체계 시험 발사, 항모전투단 편성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항모 자체의 장 비 및 전술 운용 교리·교범과 함께 항모전투단급 작전, 항모전투단과 지원 전력과의 합동작전, 나아가 국가전략 차원의 운용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 다. 美 군사전문가들은 빨라야 2020년경 중국이 진정한 작전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해왔다.⁶⁸⁾ 2013년 미 국방부 장관실에서 발 행한 문서에 의하면 2015년까지는 함재기가 작전배치 목적으로 탑재되지 않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⁶⁹⁾

필자가 보기에는 실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각종 정치·군사적 상황 에 배치되는 시기는 취역으로부터 2~3년 후인 2015년 후반에서 2016년 전

67) Amy Chang, “Indigenous Weapons Development in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Report, April 5, 2012, pp. 21~24., www.defenceforumindia.com.

Mark A. Stokes, “China’s Evolving Conventional Strategic Strike Capability: the anti-ship ballistic missile challenge to U.S. maritime oper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and beyond”(2009. 9. 14), <http://project2049.net/net/>

68) 陸易(Yi Lu), “중국 해군의 항모작전 구상,” 『세계의 함선』, 2012년 9월호, p. 3.

69)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14.

반까지가 될 것이다.⁷⁰⁾ 물론 이 시기에도 항모전투단으로서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시, 양안관계 위기 시, 동·남중국해 도서영유권·해양관할권 분쟁 시 현장 인근 해역에 배치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다.

2. 중국해군의 작전능력

가. 원해작전 능력

중국해군은 1999년 이후 다수 도입·건조한 신형 대형함정의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2005년경부터 원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중국해군은 2005년 서태평양 군사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1~3회, 현재까지 10회 이상을 실시해오고 있다.⁷¹⁾ 훈련 유형은 대부분 오키나와 인접해역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 복귀하는 형태이며, 대한해협, 쓰가루해협이나 류큐 남단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중국해군은 아덴만 해적 퇴치를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차례 45척 내외의 함정을 파견해왔다.

중국해군의 서태평양 해역 훈련의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중국해군력 신장에 따른 원해작전 능력 과시, 둘째, 신형함 기반 전술 개발·숙달 및 합동작전 능력 향상, 셋째, 미 해군력에 대한 ‘반접근’(A2/AD)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러간 연합해상훈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 함정은 주기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 기회를 통해 러시아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⁷²⁾ 이와 함께 중·러 해군간 본격적인 연합훈련도 수차례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중·러 해군간 합동상륙훈련은 양국해군의 병력 1만여 명, 함정 16척, 항공기 34대 이상이 참가하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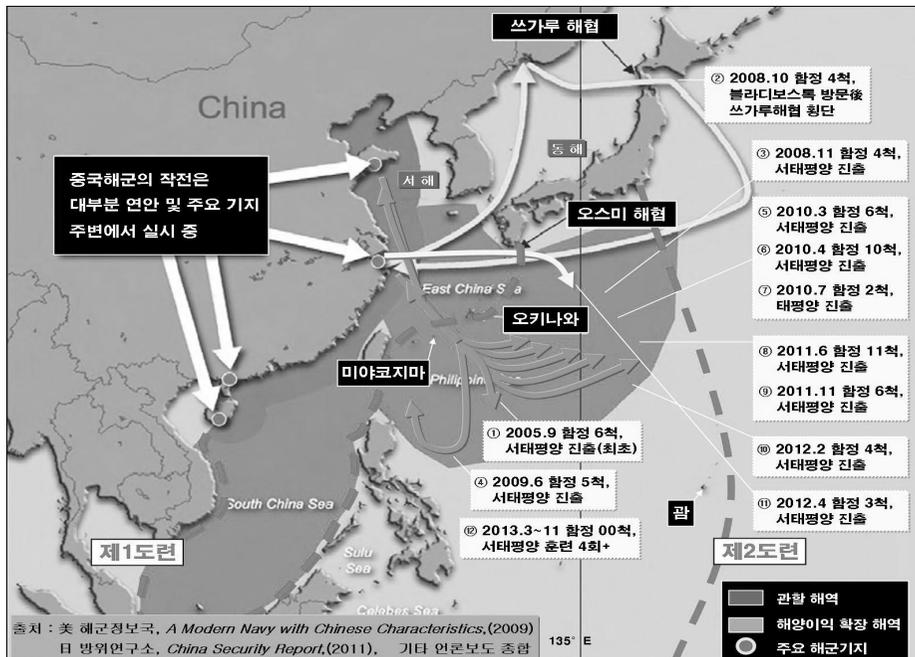
70) 선진국 군사전문가들은 ‘랴오닝’ 항모전투단의 정상적인 능력 구비 시기를 대체로 2017년 이후로 추정되어 왔으나, 필자는 중국 특유의 국가역량 집중 능력과 해군의 군사혁신 속도를 감안하여 2016년 이전에 실질적 활동을 할 것으로 추정한다.

71) 일본 방위연구소, *China Security Report 2011*, p. 15.

72) 19994년 5월 중국 해군함정의 최초 블라디보스톡 방문 이후 6차례 이상 매회 2~3척의 함정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고 있다.

규모 훈련이었다. 2012년 4월 중국 칭다오(靑島) 근해에서 실시된 ‘해상협력-2012’ 연합훈련에는 러시아 수상함 7척(함정 탑재헬기 4대)과 중국 수상함 16척, 잠수함 2척이 참가하였다. 2013년 7월 동해에서는 중-러 해상훈련으로는 최대 규모로 ‘해상연합 2013’ 훈련이 실시되었다.⁷³⁾

최근 중국해군이 러시아 해군과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이유는 첫째, 중국이 건조한 항모·전투함·잠수함과 탑재된 장비·무기체계는 주로 러시아제를 모방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도입한 함정·무기체계도 상당하므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교범을 시험적용하고 전술을 습득·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둘째, 미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과 경쟁·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반면,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으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항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일 연합으로 역내 해상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그림 2〉 중국해군의 사태평양 훈련 현황⁷⁴⁾

73) 블라디보스토크 이타르타스-연합뉴스, 2013년 7월 9일.

74) U.S.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일본 방위연구소, *China Security Report*, 2011.

현대 해양전장에서 최첨단 전투 개념인 협동교전능력(CEC)⁷⁵⁾ 측면에서 중국해군에 대한 능력 평가는 향후 해양전장에서 중국군의 방책과 작전능력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협동교전능력은 지상·해상·공중·우주에서의 모든 작전 요소의 대양작전능력, 탐지·식별 능력, C4I 능력과 전자전·대공전·대미사일전 능력, 그리고 기타 지원 요소의 능력이 통합된 능력으로서 전 세계 해군 중 미국 해군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협동교전능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군은 다수의 정찰감시 및 데이터통신 위성체계를 바탕으로 원해에서 실시간 협동교전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⁷⁶⁾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전술을 개발, 숙달하기까지는 향후 수 년에서 십여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중국해군의 작전범위 확대가 미치는 영향

2014년 현 시점에서 중국해군의 작전능력은 지리적 범위 측면에서 제1도련권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해군 함정들이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하는 것을 근거로 중국해군의 작전 범위가 제1도련 외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시 훈련 목적으로 나아가는 지리적 범위 또는 해적과 같은 비전통적·초국가적 위협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이 국가 차원의 정규 해군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2013년 10월 13일 중국해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9월 17일 동해함대 소속 H-6폭격기 편대의 해상기뢰부설훈련에 이어 10월 25~27일간 Y-8정찰기와 H-6폭격기가 오키나와 근해를 통과하여 태평양상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⁷⁷⁾ 이것은 유사시 중국해군 함정과 함께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해군항

75) 협동교전능력(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주어진 전장 내 모든 작전요소의 정찰감시 체계를 통합하여 실시간 공유하여(정보중심전, Network Centric Warfare), 최고 수준의 전장인식과 통합된 화력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특히 초를 다투는 상대방의 유·무인 공군기와 유도탄에 대응하여 타 작전 요소의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전장 내 모든 함정들의 방어능력이 합쳐져서 하나의 통합된 방어망을 형성하고 교전하게 된다. 즉, 전투수행체계의 통합체계(system of systems)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U.S. Navy Fact File, www.navy.mil/navydata/fact_display.

76) "CEC: Cooperative Engagement for Fleet Defense," 2013년 10월 24일, www.defenseindustrydaily.com.

77) 연합뉴스, 2013년 10월 13일과 10월 28일.

공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협동작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군의 조기경보기·정찰기·공중급유기·최신예전투기, 그리고 제2포병의 대함탄도미사일·장거리대지순항미사일·방공미사일 등도 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중국해군 수상함의 작전범위는 대체로 지상기지를 둔 지원전력의 범위 내에 두는 것이 안전한 방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랴오닝’ 항모전투단을 포함하여 중국해군의 실질적인 작전능력은 대략 2020년까지는 제1도련⁷⁸⁾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해군의 항모전투단은 당분간 미 7함대(항모강습단 등)의 실질적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랴오닝’ 항모전투단을 포함한 중국해군의 작전능력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전반경이 약 500km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항모전투단이 서해에 배치될 경우 서해 전해역이 작전범위 내에 포함된다.⁷⁹⁾ 만약 중국 항모전투단과 미국 항모강습단이 서해에 함께 배치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매우 고조된 시기일 것이며, 작전반경이 중첩되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해군의 항모전투단은 한·미 양국에게 정치·군사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은 항모전투단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남북한 분쟁 발생 시 또는 북한 위기 시 한반도 서·남해에 배치하거나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위협함으로써 한·미동맹국에 심리적 영향을 주고 연합 해상작전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항모전투단을 한·중간 해양경계획정 및 서해 ‘내해화’(内海化)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동·남중국해에서 분쟁 발생 시 중국이 항모전투단을 분쟁 해역에 배치할 경우 미군 전력의 접근을 지연하면서 주변국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향후 중국해군이 미·일 등 해군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극복해나가고, 더 많은 항모전투단을 구비하는 등 양적으로 전력이 팽창함에 따라 중국

78) 일본 큐슈섬 남단-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의 내측 해역으로 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S.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p. 5.

79) 서해에서 중국 산둥반도 동쪽 끝단으로부터 한반도 서단인 백령도까지 직선거리는 약 180km이며, 태안반도 서측 도서와의 거리는 약 270km이며, 목포 서남방 도서와 중국연안 최단거리는 약 400km이다.

해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2020년 2~3개 항모전투단 확보 이후 10년 내에 총 6개의 항모전투단이 확보된다면 중국해군의 지리적 작전범위는 제2도련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시기에는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도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군이 중국이 심리전 차원의 목소리를 드높이지 않아도 분쟁해역 인근에 항모전투단만 배치해두면 원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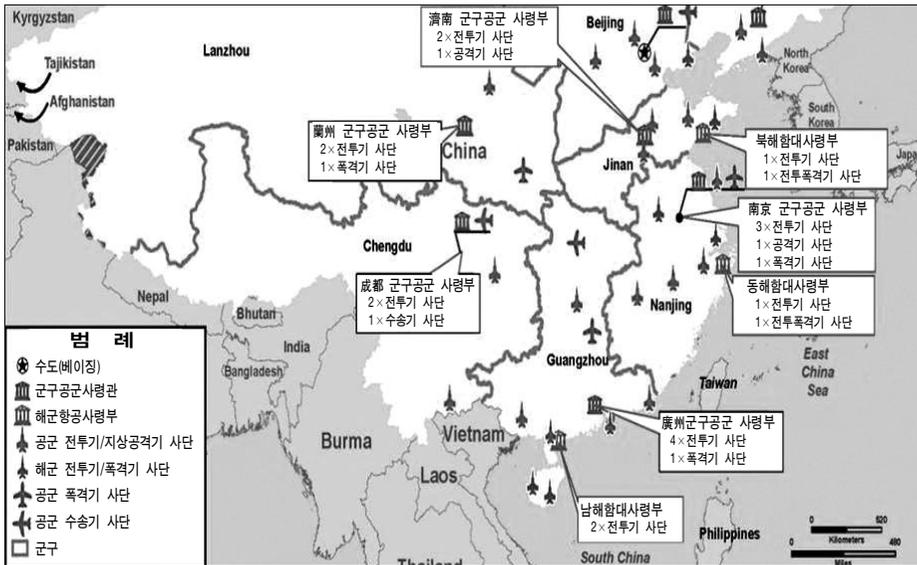
3. 공군·제2포병·우주자산의 해양전장 지원능력

중국군은 육·해·공군과 전략미사일을 관할하는 제2포병으로 구성되어 4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7개 대군구로 나뉘어져 배치되어 있다. 각 군구사령관은 군구 내 배치된 4개 병종을 지휘(또는 작전통제)하므로 군구 중심으로 육·해·공군·제2포병이 통합된 상태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하는 체제이다.⁸⁰⁾ 따라서 군구 관할 해역에서 해상작전 시 공군·제2포병 등이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군은 군구 단위 및 전국 단위의 통합된 작전지휘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휘통제체계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가. 공군의 지원능력

중국군의 공군 전력은 중국해군 함정과 항공기의 해상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북한 위기 시 상당한 전력이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작전이 가능할 것이며, 역내 해양관할권 분쟁 시에도 조기경보·요격·정밀타격·수송·공중급유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해양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는 한반도 인접 군구인 심양군구와 제남군구에 각각 4개와 3개의 비행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0) 단 제2포병은 중앙군사위원회-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각 군구사령관(사령관)은 관할지역 내 제2포병에 대해서 제한된 작전통제 또는 협조 하는 관계로 추정된다.



〈그림 3〉 중국 해·공군 비행사단 배치도⁸¹⁾

중국공군은 대부분 2, 3세대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4세대 전투기⁸²⁾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2011년 1월 미국의 F-22와 유사한 형태의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J-20 시험비행에 성공하였으며, 2012년 10월 31일에는 미국의 F-35와 유사한 형태의 J-31 전투기 시험비행에 성공하였다.⁸³⁾ J-20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은 1,500km 정도로 추정되며, 전력화 시기는 2020년경으로 전망된다.⁸⁴⁾

중국공군은 지난 10년간 ‘정찰 및 조기경보, 항공강습,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전략적 투사’로 설정한 후 비전에 도전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최신 전투기·전폭기 비율이 2009년 22.4%에서 2012년 39.3%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⁸⁵⁾ 중국의

81)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13*, p. 77.

82) 4세대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1970년대 개념으로 설계되어 1980~2010년까지 사용되는 전투기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F-14, F-15, F-16, F/A-18, 러시아의 MiG-29, Su-27, 프랑스의 미라주 2000, 영·독·이탈리아의 토네이도, 중국의 J-10 등이 해당된다. www.wikipedia.org.

83)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p. 16.

84) 중국 공군사령원(쉬치량)은 J-20전투기 전력화와 관련하여 “2014년에 대량 생산을 개시하여 2015년부터 부대에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11년 2월 8일.

85) *Military Balance 2013*, pp. 292~93, www.globalsecurity.org.

5세대 첨단 전투기들은 미국의 F-22나 F-35에 비해 스텔스, data-link, 장착무기 등의 성능이 훨씬 뒤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공군력은 양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최대이며, 2020년경 5세대 전투기 작전배치와 함께 중국 독자적인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을 완성한다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군의 지역방공 전력인 SA-20, HQ-9 방공미사일을 연안에 이동 배치하여 운용한다면 상대방 공군기의 접근을 저지·견제함으로써 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군이 보유한 방공미사일은 자체 개발 지대공미사일(HQ-7/9/12 등)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A-10/20 등 6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반도 서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은 HQ-9 32식과 SA-20 64식으로서 사거리는 대략 200km, 고도 30km 정도이다.⁸⁶⁾ 중국공군의 방공무기는 한반도 서해와 남해 해역에서 한국 공군의 작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공군의 전자전기, 정찰기, 조기경보통제기 등도 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군은 II-76를 개조, 조기경보통제기(AEW&C) KJ-2000을 개발하여 2008년 5대를 실전 배치하였고, 중형수송기 Y-8을 기초로 조기경보기 KJ-200(AEW&C)을 개발하여 2009년 이후 4대 이상을 실전 배치하였다.⁸⁷⁾ Y-8 조기경보통제기는 중국해군 항공대에서 6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군에서 지원 시 해상작전능력이 현저히 향상될 것이다.

중국공군의 공중급유기는 해군항공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은 1970년대에 공중급유기술 연구를 시작, 1991년 공중급유에 성공하였다. 보유 기종은 폭격기 H-6를 개조한 H-6U이지만, 급유가 가능한 전투기는 J-8D/F/H 및 J-10/11로 제한된다.⁸⁸⁾ 중국해군 전투기 중에서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전력은 J-8D/F/H 2개 대대(48대), J-10A/S 1개 대대(28대), J-11B/BS 1개 대대(28대)일 것이다.⁸⁹⁾

중국공군은 1950년대 구소련의 Tu-16을 기반으로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오고 있는 H-6 폭격기는 장거리 공대함미사일을 함정에 투발

86) *Military Balance 2013*, p. 292; www.wikipedia.org.

87) www.wikipedia.org.

88) 중국은 Su-30계열 전투기의 공중급유를 위해 2005년에 러시아에서 II-78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해군 항공대는 Su-30MK2 1개 대대(24대)를 보유하고 있다.

89) *Military Balance 2013*, p. 290.

하거나, 해군항공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제공함으로써 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공군은 총 82대의 H-6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⁹⁰⁾

2008년 중국 국방백서에 의하면 중국공군은 공군력 건설목표를 ‘영공방어에서 공세적 방어작전으로 전환’으로 설정했다고 한다.⁹¹⁾ 이것은 중국공군이 작전범위를 해양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군이 중국해군 전투기와 함정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나.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의 지원능력

중국군에는 육·해·공군과 함께 네 번째 군으로서 병력 약 10만명의 전략 유도탄 부대로 구성된 제2포병이 있다. 제2포병사령부 예하 군구급 발사기지 6개는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4대 총부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다.⁹²⁾ 제2포병이 보유한 탄도탄 능력은⁹³⁾ 중국 관련 분쟁 상황에서 미국 개입 시 미·중간 확전을 억제하고 재래식 무기체계에 의한 제한전쟁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군 제2포병의 주요 능력으로 첫째, 지상(TEL)·해상·수중·공중에서 다축 중심공격이 가능하다. 둘째, 해·공군이 보유한 H-6K 폭격기(작전반경 3,000km)에 전략순항미사일(사정거리 2,500km) 6기 탑재가 가능하며, 타격반경은 5,000km(공중급유시 7,000km)로 평가된다.⁹⁴⁾ 셋째,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Jin(晉)급 SSBN은 JL(巨浪)-2 SLBM 12기 탑재가 가능하며, 2011년까지 2척 전력화로 SLBM 24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까지 SSBN 5척을 보유하여 SLBM 60기 확보가 예상된다. Jin급 SSBN에 탑재된 JL-2 SLBM 대신에 잠수함탑재용 DH(東海)-10 SLCM(3,000km, 핵탄두 가능) 탑재가 가능하다.⁹⁵⁾ 2006년도부터 작전배치된 DF(東風)-31A ICBM(11,200km

90) *Military Balance 2013*, p. 292.

91) 『2008 중국국방백서』.

92) James C. Mulvenon and Andrew N. D. Ya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s Organization*, RAND, 2002, p. 96., 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hina/pla-org.htm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93) 제2포병은 중국군이 보유한 330~350여개 핵무기 중 180~200개의 핵무기를 관리하며, 제공·제해권 장악을 지원하기 위해 방공미사일을 운영하거나 상대방의 방공미사일 등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94) 勤巴克顧問公司, 『崛起東亞』(대만, 2009), pp. 26~27.

95) 勤巴克顧問公司, 『崛起東亞』(대만, 2009), pp. 31~34.

추정)은 1기당 3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북쪽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하다.⁹⁶⁾

중국군 정밀타격수단의 특징은 타격 시 명중률이 CEP 10m 이내로 정밀하며, 지상·해상 저고도 비행 기능, 레이더 전파 흡수 도료, 스텔스 외형설계, 적외선 피탐 감소 설계 등 선진 유도탄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유도 방식으로 중간비행단계에서 관성유도체계, GPS, 지형 대조 유도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말단계에서는 적외선, 전자광학영상, 수동회로, 자동화 등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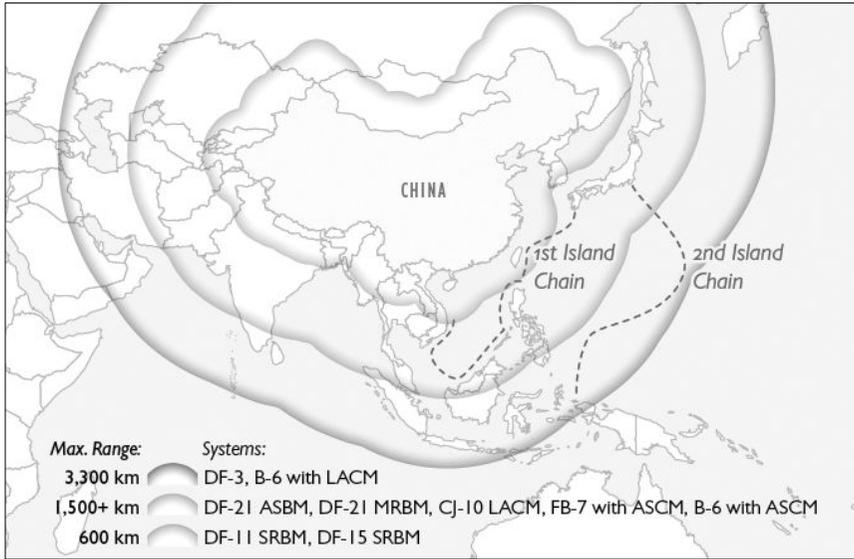
〈표 5〉 중국이 보유한 정밀타격수단⁹⁸⁾

전술탄 도미사일	DF(東風)-11A: 사거리 350~750km DF(東風)-15A: 사거리 600~1,000km DF(東風)-21A·B·C·D: 사거리 1,800·2,400·3,000km(추정) * 자모탄, 전자기펄스탄(EMP), 벙커버스터, 기화폭탄(FAE) 등 개발 중
순항 미사일	HN(紅鳥)-1, 2, 3: 사거리 600~2,500km YJ-63(鷹擊)-63: 사거리 250~400km DH(東海)-10 LACM: 사거리 2,000km 등 * 전술핵탄두, EMP탄, 기화폭탄, 유산탄 개발 추진 중

96) 중국군의 전략미사일 능력은 *Military Balance 2013*; www.globalsecurity.org;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2014* 등을 참조하였다.

97) 중국은 근래 미국이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으로부터 '초한전(超限戰)' 이론을 정립하고, 정밀타격능력을 중국식 비대칭 전쟁 수행 요소의 하나로 분류하여 다양한 정밀타격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초한전(超限戰)은 적군의 네트워크와 정보유통을 교란하고 C2체계, 공항, 항구, 방공진지 등 중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하여 치명타를 입히는 점혈(點穴)식 효과 중심작전(EBO)이라고 할 수 있다. 靳巴克顧問公司, 『崛起東亞』(대만, 2009), p. 56. 중국식 비대칭 전쟁 수행의 3요소는 ① 우주 감시정찰, ② 전장 정밀타격, ③ 전략 위협 타격이라고 알려져 있다. 靳巴克顧問公司, 『崛起東亞』(대만, 2009), p. 30.

98) Andrew S. Erickson, "China's Military Space Surge," *AEROSPACE AMERICA*, March 2011.



〈그림 4〉 중국군의 중·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능력⁹⁹⁾

최근 중국군은 항모 등 대형함정 타격이 가능한 대함탄도미사일(ASBM)¹⁰⁰⁾과 상대방의 지원기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지순항미사일(LACM)을 개발·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F-21D 대함탄도미사일은 2012년 현재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배치 수량과 장소는 미상이다. 지상표적 시험발사는 수차례 이상 실시하였으나 해상 이동표적에 대한 시험발사는 미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직까지는 완전한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우주자산의 지원능력

2013년 현재 중국의 위성은 총 52개로서 통신위성 4개(민군 겸용), 항행/위치/시간 서비스용 위성 17개(민군 겸용), 정찰감시용(ISR) 20개, 전자/신호정보수집용 11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¹⁾

99)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12*, p. 42.

100) 외기권 탄도 비행으로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며, 대기권 재돌입 후에도 표적을 향해 기동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중국 특유의 비대칭적 무기체계로 미국에서 위협적으로 평가해왔다. 현재 사정거리 1,500km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2014 자료를 종합하였다.

101) *Military Balance 2013*, p. 287.

〈표 6〉 군사적 사용과 지원이 가능한 중국 위성 능력¹⁰²⁾

종 류		성 능	비 고
통신	‘텐렌’계열 (데이터중계)	실시간 고속 영상압축 코딩 기술 사용하여 정찰 감시 데이터를 세계 전 지역에 실시간대 전송	추진 중
	‘베이더우(北斗) 계열’ (위성항법시스템)	잠수함·함정·항공기·미사일에 위치정보를 제공. 구축 완료 시 원거리 작전·정밀타격 능력 획기적 향상	중국 주변 지역 완료
	‘둥팡홍(東方紅)’ (방송용)	평시 TV·라디오 채널로 사용, 전시에는 군사통신용으로 전환 가능. 지구정지궤도에서 대용량 통신, 위성 라디오, 위성 생중계, 이동통신, 원거리 교육·의료 중계	배치 중
감시정찰	‘야오간(遙感) 계열’ (레이더·영상 감시)	SA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천후 레이더영상 감시기술위성과 전자광학영상 감시기술을 융합한 감시체계	추진 중
	‘첸샤오(前哨) 계열’ (공중기반 조기경보)	‘텐렌’중계위성 및 지상 조기경보레이더와 연동, 탄도미사일 포함 모든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조기경보	완료단계
	‘하이양(海洋)’ (관측위성)	서태평양·인도양에서 함정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전자·통신정보를 수집. 평시에는 가상적국 함정과 잠수함의 동태를 감시하고, 전시에는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표적정보를 제공	추진 중
	‘즈위안(資源)’ (지형·환경 관측)	수집 자료로 3D 전자지도를 작성하여 순항미사일 등 군사용으로 사용	추진 중
	‘쉬지안’(정찰)	신호정보 및 전자정보 수집	배치완료
과학	‘핑윈(風雲)’(기상관측)	작전부대에 전 세계 기상정보 제공으로 전장 기상판단에 활용	추진 중
	‘젠빙(尖兵) 계열’ (정밀정찰 및 지형자료수집)	촬영된 필름과 자료를 실시간 전송이 가능	추진 중

중국은 2012년 총 18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주작전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위성의 종류는 정보수집, 정찰, 감시, 위성항법 제공, 기상, 통신 등 다양하다. 특히 위성항법 제공은 2012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확보하였고, 2020년까지는 전 세계를 대상으

102) 靳巴克顧問公司, 『崛起東亞』(대만, 2009), pp. 26~27; Andrew S. Erickson, “China’s Military Space Surge,” *AEROSPACE AMERICA*, March 2011; *Military Balance 2013*, p. 287.

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체계를 구비할 경우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GLONASS 등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일 명중률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군사분쟁 발생 시 다수의 위성을 이용하여 전장정보를 파악하고, C4I와 data-link 체계를 연동하여 지·해·공 협동교전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위성 사용을 거부하기 위한 위성요격 능력이 완성될 경우, 향후 중국군의 반접근(A2/AD) 능력은 현저하게 신장될 것이다.¹⁰³⁾

IV. 중국군의 해양분쟁 양상과 대응방향

해양 영토와 관할권은 중국의 국가주권에 관련되어 있다. 어떤 나라이든 국가 영토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군사력의 실제 사용 여부와 강도(強度)는 국제체제 차원에서 힘의 관계에 의해 제한되거나 촉진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작전 수행은 해군 자체의 능력과 함께 공군·제2포병·우주 자산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중국은 평시 훈련과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서태평양과 아덴만까지 작전영역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정규전 측면에서 보면 2014년 현재 중국의 해양작전능력은 어림잡아 제1도련권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경 2~3개 항모전투단 확보와 함께 제1도련권을 넘어서고 이후 제2도련권으로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개념을 방어적이라고 하나 필요시 과감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공격적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적극방어전략”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실행하여 적당한 시기에 방어를 공격으로 전환하며, 필요시 적 영토에 진입하여 위협 발생 요인을 제거한

103) 중국은 2007년 1월 노후한 중국 기상위성을 對위성무기로 직접 격추하였으며, 2010년 1월 표적미사일 비행 중간단계에서의 요격실험에 성공하였다. 『한국일보』, 2011년 2월 5일.

다는 개념으로 공세적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¹⁰⁴⁾

예를 들면, 1969년 중·소 국경분쟁 시 중국은 국력이 강한 소련과 무력 충돌을 했던 사례를 볼 때 중국은 강대국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전쟁 개입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 중소분쟁의 경우처럼 강대국에게도 주저없이 무력을 사용하였지만, 특히 국력이 비슷하거나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무력을 사용해왔다. 1945~2005년까지 중국의 영토분쟁 총 23건 중 무력충돌이 5회로서 중·인 국경분쟁(1962년), 중·베트남 해상무력충돌(1974년, 1979년, 1988년) 등이 주요 사례이다.

중국은 201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도서영유권 분쟁 문제로 인해 일본·필리핀 등과의 각 5회이상 해상 무력대치를 하였으나 실제로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개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무력 사용은 아직까지는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국력이 중국을 압도하는 한,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사용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장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에 의한 소규모 분쟁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1. 예상되는 분쟁 양상

향후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분쟁 발생 시 중국군이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양전장을 운영할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중국군의 해양전장 운영은 전략적 이익과 중국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전개될 것인 바,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론하고, 중국군의 능력에 기초한 해양전장 운용 양상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가. 전략적 여건

중국은 이미 G2로 부상한 강대국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현저한 국력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잡기까지는 국가발전이익의 제고가 가장 중요하

104) Peng Guangqian(彭光謙) and Yao Youzi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pp. 274~77.

다. 따라서 중국은 분쟁 발생 시 가능한 한 비군사적 방법을 선호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도서영유권·해양관할권 등 국가의 영토주권과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¹⁰⁵⁾

아울러 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 내부 문제로 인한 체제위기 발생 시에도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 국가로서,¹⁰⁶⁾ 전통적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순망치한(唇亡齒寒)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 위기 시 중국은 주변지역 안정 유지와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방지라는 전략적 이익이 있는 바,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서해·남해는 중국 영토방어에 긴요한 해역으로서 중국은 미국 항모강습단이나 해양조사선의 서해 진입에 대해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중국은 서해 및 이어도·가거도를 포함한 서남해역 일원에서 해상·공중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위기시 또는 한국과 해양관할권 분쟁시 한반도 서해·남해는 작전적 요충지가 될 것인 바, 중국은 평시부터 이 해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역내에서 분쟁 발생 시 미 군사력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A2/AD)을 구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위기 시 또는 한국과 해양분쟁 발생 시 서해·남해에서 미국의 군사력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동해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일본·러시아에 대한 군사작전의 요충지가 될 것인 바, 중국은 동북지역으로부터 동해로의 출해권(出海權) 확보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강도(強度)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

105) John H. Maurer, "A Rising Naval Challenger in Asia: Lessons from Britain and Japan between the Wars," *Orbis*, Vol. 56, No. 4 (Fall 2012). 혹자는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와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동장치로 작동하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러한 보장은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례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제1차/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전쟁 당사국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있었으나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은 국제질서에 대한 정체성과 이익의 충돌 때문이었을 것이다.

106)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년 7월 11일 체결)은 현재까지 폐기되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중국이 군사개입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가능성이 있다.

점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의 힘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⁰⁷⁾ 특히 중국의 국제질서관이 미국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이할수록 이익의 상충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의 분쟁의 가능성과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⁸⁾

지리적 여건 측면에서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분쟁 발생시 해양은 군사적 기동공간으로서 해양에서의 우세 장악이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양은 천혜의 군사적 기동공간으로서 방어와 공격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서해는 북한 도발 시 해상·공중·우주 위협 차단과 공세적 작전 수행 및 발생 가능한 중국의 해상군사개입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동중국해는 한반도 서해 및 동해로 기동하는 길목이자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 해역의 해상우세/통제권 장악은 전쟁 전체 국면에서 결정적 지점이 될 것이다.

나. 예상되는 중국군의 해양작전 시나리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쟁 시나리오는 첫째, 북한의 도발이나 내부 위기에 따른 한반도 분쟁 가능성이다. 중국은 북한 위기 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거처럼 중국의 해군력이 미약할 때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지상군 위주로 개입하겠지만 현 시점,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해상을 통한 개입 가능성이 점점 더 증대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중국은 한국·일본 등과의 해양관할권·도서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중국은 주변국 군사력에 단독으로 대응하거나 미국의 군사력을 함께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군은 어떻게 해양전장에서 승리를 달성할 것인가? 우선 중국군은 상대방의 군사적 능력의 강·약점을 평가하여 최선의 방책을 찾

107) 세력균형이라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한 필자의 해석이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Alfred A. Knopf, Inc., 1985).

108) 국제정치에서 이익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민석, 『위싱턴체제의 성립 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 James Der Derian, ed., *Internation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서 평가한 중국군의 해양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군 입장에서 상대 국가의 강·약점은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과 주변국의 강약점을 비교해 보면 중국군 해양전장 승리의 결정적 관건은 미국의 개입 여부이다. 따라서 중국의 첫 번째로 유리한 방책은 미군 전력의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현장에 군사력을 신속 배치하여 선점한 후 정치적 해결을 강요하는 ‘단기속결전’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가능한 한 첨단전력의 대결을 피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방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올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원거리에서부터 지연·저지시킴으로서 미국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적 우세를 달성하여 국지적인 승리를 거두고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단기속결전’에 의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장기지구전’으로 전환하면서 해상교통로를 교란하여 주변국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로 다가갈수록 중국의 경제력·군사력(군사기술수준 포함)이 향상된다면 시간은 중국의 편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삼전(三戰)¹⁰⁹⁾ 차원에서 비대칭적·비군사적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단호한 대응 또는 일전불사(一戰不辭)를 공언하는 등 단호한 결전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전 수행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109) ‘삼전(三戰)’은 중국 고유의 전법으로서 법률전·여론전·심리전을 포함한다. 미국의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과 유사하며, 4세대 전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표 7〉 중국군 입장에서 본 주변국 군사력의 강약점(추정)¹¹⁰⁾

강점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 질적 우세 연합/합동작전 경험 및 원해작전 능력 우세 위성체계, 전자전, C4I 체계의 질적 우세로 정보전장 지배능력 및 복합교전능력 우세 분쟁도서와의 지리적 근접성 및 인근에 활용 가능한 임시 군 비행장 보유 군 비행장을 활용한 공중방호 및 지원 작전 가능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미 항모강습단 전개 시 중국군 작전 반경 제한 NATO 등 선진국 공조를 통한 중국의 외교적·군사적 고립 가능성 미군의 실전 경험과 주변국의 연합작전·훈련 경험
약점	중국군에 비해 잠수함 및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 수적 열세 중국군 사이버 공격 시 대응능력 미비 ¹¹¹⁾ 중국군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곤란 분쟁지역 도서들이 본토로부터 원거리 이격되어 있어, 중국군의 기습상륙 점령에 적시 대응 곤란 중국군 기뢰부설 능력 대비 기뢰제거 능력 부족 자유민주국가로서 국내 여론 결집 및 국가자산 총동원 제한 가능성 내재 해상교통로 교란 시 에너지 수급 곤란에 따른 전쟁지속능력 약화 ☞ 장기지구전에 불리(중국은 광범위한 국토 내의 자급능력과 지상송유관보유로 장기 지구전 시 상대적으로 유리) 미군 개입 지연 또는 불개입 시 주변국은 단독 대응하기가 곤란 ☞ 중국과 WMD전쟁으로의 확전 우려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선결 조건

위와 같은 방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국군이 달성해야 할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작전능력은 대규모 전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하는 능력일 것이다. 이것은 현장에서의 수적 우세 달성과 함께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는데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해군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근해에서의 해상·공중 우세 장악을 추구하겠지만,¹¹²⁾ 단기적으로는 장비의 질적 열세를 고려하여 비대칭적인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양분쟁 현장에서 중국 공군·제2포병 전력의 지원 아래 해군력의 수적·양적 우세를 유지하면서, 중국군의 강

110) 2012년 중·일 도서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 군사전문가들이 기고한 “중국군의 군사작전 시나리오”(홍콩 『亞洲週刊』, 2012년 9월 16일)를 참고하였다.

111) 미 국방부, “중국군의 해커부대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 2012년 8월.

112) 대만 해역에서 국지분쟁 발생 시 중국해군의 단기 목표는 ① 대만해역에서 전면적인 해상·공중 우세 유지, ② 동중국해에서 국지적인 우세 장악, ③ 제1도련 내 해상·공중작전 우세를 장악하여 미군 개입 거부, ④ 남중국해에서 전면적 우세 장악이라고 한다. 斬巴克顧問公司, 『崛起東亞』(대만, 2009), p. 41.

점인 잠수함 및 미사일의 수적 우세를 활용하여 원거리에서 분쟁 상대국을 견제, 저지하되 함정간의 대규모 해상결전은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각 방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국군 작전 시나리오는 <표 8>에서 보듯이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표-8> 중국군 작전 시나리오(3단계)¹¹³⁾

<p>1단계</p> <p>정보전쟁 우세 달성, 주요도서 점령</p>	<p>미군 개입 시 공군·제2포병과 연계하여 사전 미국 정찰위성 파괴·교란 작전 실시로 ‘제천권’(制天權: 우주전장 지배) 장악 전자권(電磁權: 電子戰보다 광범위) 우세 우선적 확보 후 작전 실시 - 중국군 전자전 작전 전개로 미군·일본군에 대한 전자시스템 파괴 ☞ 중국군은 전자전 우세가 대승의 선결조건이라고 판단 해병대로 전략 요충지 점령 후 상대국에 의한 탈환 거부 작전 전개</p>
<p>2단계</p> <p>미군 접근 거부 (반접근)</p>	<p>미 항모 진입 시, 대량의 대함미사일 이용 미 항모전단 공격 위협 ☞ DF-16, DF-21D미사일(ASBM)과 1,400여기의 전술탄도미사일·장거리 순항미사일 이용, 약 2,000km권 정밀 타격(CEP: 100m 이내) 매복 잠수함에 의한 어뢰·미사일 공격 및 대량의 함대함·공대함·지대함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 미 전력 접근을 단계적·점진적 지연 또는 저지 ☞ 해상접근금지구역 설정하여 미군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 분쟁 현장에 신속하게 대규모 전력 배치로 수적 우세 달성</p>
<p>3단계</p> <p>분쟁 대상국과 해상·공중 결전 (미국과 직접 교전 회피)</p>	<p>대함미사일 및 잠수함으로 상대국 수상함 공격 ☞ 중국군 수상전력은 성능이 떨어진다고 판단,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 실시 ☞ 중국군 잠수함의 수적 우세 활용(중국 잠수함 60여 척) 전항 불리 시 기뢰 제거 어려움의 약점을 이용, 기뢰 부설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작전에 집중 미국이 군사력 사용 의지 표명 시 교전 상대국 내 미군 전개·양륙기지 공격 주변국 내 미군기지 폭격 위협 또는 미 본토 대륙간탄도유도탄 공격 의지 천명</p>

중국군은 무력충돌 시 미·중간 확전 가능성을 고려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국과의 결전은 중국군 스스로도 “下策”(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책)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군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된 것이지만 향후, 중국과 주변국간 분쟁 발생 시 중국군은 위 시나리오와 유사한 형태로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113) 『亞洲週刊』, 2012년 9월 16일; 美 전략예산평가센터, 『AirSea Battle Concept』(2010) 등 자료 종합.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북한 위기(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또는 내부 붕괴) 시 중국이 해상으로 개입한다면 또는 중국-한국/일본의 해양관할권·도서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격화될 경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생각해보자.

첫째, 북한 위기 시 중국해군이 서해에 항모전투단을 배치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가? 중국이 서해 NLL 이북 해역 즉, 북한의 서해 인접 해역에 대규모 해상전력을 배치하고 해상배타구역(MEZ)¹¹⁴⁾ 또는 해상안전구역(MSZ)¹¹⁵⁾과 유사한 접근금지구역을 선포한다면 한·미 연합군의 해상작전은 심대하게 제한을 받을 것이다. 즉, 북한 서해 해역에 접근을 하지 못할 경우 해상을 통한 우회기동과 지상작전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고, 서해 상공에서의 공군작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서해를 통한 한·미 연합군의 상륙투사능력은 한반도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바, 북한 후방 지상군 전력의 분산을 강요하여 지상군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실제 상륙작전을 통해 평양 등에 위치한 북한의 전략적 중심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NLL에 연하여 전진 배치된 북한 지상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체 전쟁 국면에 걸쳐서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2020년 경 또는 그 이후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항모전투단 1개가 서해에 배치되고, 다른 1개가 제주 남방 동중국해에 배치되어 미 항모강습단의 서해 진입을 거부한다면 한국해군은 서해에서 미 해군과 연합으로 수행해야 할 모든 작전을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 한·중 간 서해·남해 대륙붕 경계를 포함한 해상관할권 획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두고 분쟁이 고조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 중국이 항모전투단을 서해나 이어도 주

114) 포클랜드 전쟁 시 영국은 포클랜드 주변 해역에 해상배타구역(Maritime Exclusive Zone)을 설정하여 아르헨티나 해군의 접근금지를 요구하면서 핵잠수함을 이용하여 그 의지를 관철하였다.

115) 해상안전구역(Maritime Safety Zone)은 한 국가가 해상 관할구역 내에서 사격훈련, 해저작업 등으로 인해 통항선박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접근을 금지를 경고하기 위해 설정하는 해상 구역이다.

변에 배치하여 항공작전을 수행한다면 한국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연 확전이나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무력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주권 수호 의지는 무엇보다도 실제 능력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일간 센카쿠열도 또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해저 자원을 두고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이다. 이때 중국이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교란할 경우 한국의 물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이 일본을 지원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내 주한미군의 양륙항만·공항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조건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 또는 한·미/미·일 연합군에 대적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로 갈수록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져 가는 추세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군이 성공적으로 군사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함의와 대응방향

중국은 전통적으로 지상군 위주의 전략사상과 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을 해양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단기간 내에 다양한 첨단 해군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였다. 따라서 현대 중국의 전략사고, 해군력 건설 과정 및 향후 해양전장 운영 양상은 한국군에게 중요한 함의를 시사한다.

중국해군의 군사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군사혁신 자체의 의미로서 중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상전장 중심에서 해양전장 중심으로 군사전략사고를 전환하고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과 함께 해군력 건설에 노력해온지 30년 만에 항공모함, 중국형 이지스함, 잠수함 등 양적으로는 세계 2위 규모의 해군력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냉전시대에는 진영간 대립으로,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대(對)중국 무기수출금지체제¹¹⁶⁾ 형성으로 인해 선진국의 첨단무기와 군사기술을 들여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방위산업 인프라와 기술수준이 미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군사혁신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즉, 독자적 생산능력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항모·차기전략잠수함·차기구축함 등 다양한 전력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해군 전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레이더 탐지능력, 전자전 능력, C4I 및 data-link 체계, 운용전술 교리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10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자체의 산업기술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미국과의 동맹 및 선진국과의 협력관계 등 유리한 점이 있어서 중국에 비해 군사기술적 우위를 달성하기가 좋은 여건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래 국제질서 변화와 북한의 위협, 그리고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해상에서의 전투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군이 지켜야 할 생명과 재산으로부터 더 멀리 나아가 싸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은 자명하다. 현대전 양상과 미래전 전망에 걸맞게 전장의 중심이 국토 내부가 아니라 더 먼 해양과 우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즉, 미래 전쟁터가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의 경우처럼 국토 내부가 되어서는 군의 존재가치가 없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과 중국이 미래 위협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 국방이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은 탄도·순항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등 제반 위협을 한국 영토 밖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더욱이 동·서해 해상은 북한이나 중국의 무기체계가 우리나라 영토에도달하기 이전에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천혜의 공간이므로 방어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상 표적은 적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비해 해상을 통한 방

116) 美·日·EU는 1989년 천안문 사태 관련 對중국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조기경보통제기용 레이더 등 첨단무기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저지로 실패하였다. 2007년 12월 이스라엘은 對중국 무기수출 금지 조치에 참여하였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체제를 견고히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보다 군사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된 유럽국가와 경제협력을 토대로 방산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어는 은밀성, 생존성, 기동성이 우수하며, 작전해역 배치만으로도 단호한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어 전쟁을 억제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따라서 현대전에서 해상에서의 전장 공간은 핵심적이며, 포기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

해군이 드넓은 해양 기동공간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의 50% 이상을 바다에서 막아주어야만 육군과 공군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탄도탄 방어는 중간비행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명중률, 피해위험 최소화,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Kill Chain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해상기동공간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여 24시간 배치된 상태에서 은폐·엄폐·기만책을 강구하는 표적을 실시간 감시·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⁷⁾

둘째, 북한 위기 시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주변 전개가 거부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적어도 서해에서는 한국해군 단독으로 중국해군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해상에서 북한의 다양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 및 중·일 해양관할권 분쟁 시 미국 해군의 도움 없이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의 이점을 이용하여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동시에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 건설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단독 또는 선진국과 공동으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30~50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Kill Chain 작전과 KAMD에 기여하기 위한 해군전력도 해외구매를 기정사실화하기 보다는 자체 개발을 병행하거나 선진국과 공동개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역사에서 늘 입증되어온 불변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와 한반도에 관련된 전쟁사의 교훈은 영원한 제국도 우방도 없으므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거나 편승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임진왜란, 조선의 멸망과 외

117) 미국의 이라크전쟁·아프간전쟁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효과적인 Kill Chain 작전의 관건은 24시간 감시 및 즉각 타격 능력이다. 한반도 남한에서 발진하는 경우 공군기나 UAV/F의 이동거리가 300km이상으로서 과도하게 길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상대방의 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상플랫폼에서 발진한 항공전력(유무인기)이 목표 달성 가능성, 위험 감수 부담 및 인명 손실 방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세의 힘에 의한 일제로부터의 해방, 북한의 6.25 남침전쟁에서 보듯이 자강(自強) 없는 나라는 언제든 주변국으로부터 침략 또는 간섭과 군사개입을 허용했다. 나라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유린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 변화된 북한 위협(WMD)과 미래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군 합동작전에 기여하는 해군의 작전능력을 조속하고도 온전하게 확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국방과학연구소.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 개혁현황 및 주요 국가 국방과학기술공업 개람』, 2005.
- 국방군사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 둥웨이빙(董偉兵). 육군대학 역. “新 군사혁신의 「新」.” 『중국군사혁신훈』. 육군대학, 2006.
- 루이(陸易). 김기호 역. “중국 해군의 항모작전 구상.” 『세계의 함선』. 2012년 9월호.
- 류야저우(劉亞洲)·치아량(喬郎) 공저. 육군대학 역. “전쟁의 공중화와 중국공군.” 『중국군사혁신훈』. 육군대학, 2006.
- 리빙옌(李炳彦). 육군대학 역. “군사혁신훈: 군사모략의 운용.” 『중국군사혁신훈』. 육군대학, 2006.
- _____. 육군대학 역. “중국이 추진하는 군사혁신훈.” 『중국군사혁신훈』. 육군대학, 2006.
- 리지권(李際均). 육군대학 역. “군사혁신훈과 전략사상의 변혁.” 『중국군사혁신훈』. 육군대학, 2006.
-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 안보정책과 중미관계.” 『EAI 중국패널보고서』, No. 1, 2012.
- 오카베 이사쿠(岡部 いさく) 저. 김기호 역. “미해군 7함대의 대(對)중국 작전계획.” 『세계의 함선』. 2012년 7월호.
- 왕바오춘(王保存). 육군대학 역. “세계 군사혁신훈의 발전과 그 전략적인 영향.” 『중국군사혁신훈』. 육군대학, 2006.
- 왕푸핑(王普豐). 육군대학 역. “광범위한 세계적인 군사혁신훈.” 『중국군사혁신훈』. 육군대학, 2006.
- 우스춘(吳仕春, Wo Shicun). “China’s Maritime Policy for Maintaining Maritime Peace and Order in Northeast Asia,” 제11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 2013

- 년 9월 6일.
- 우전광(吳陣光). 육군대학 역. “중국이 추진하는 군사혁신.” 『중국군사혁신론』. 육군대학, 2006.
- 일본 방위연구소. China Security Report 2011.
- 일본 조선공업회. 『조선 관계자료』. 2010.
- 전가림. “중국의 WTO체제 가입 10년: 변화중인 세계무역질서.” 2012.
- 『중국 국방백서 2008』.
- 勤巴克顧問公司. 『崛起東亞』. 2010.
-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해권(海權)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5권 제3호(2012).
- Hammes, Thomas X. 저. 하광희, 배달형, 김성걸 옮김. 『21세기 전쟁: 비대칭의 4세대 전쟁』. 2010.
- 하영애. 『중국군 현대화와 국방정책』. 1993.
- 한우덕. “중동·아프리카 원유 수송위협 중국의 ‘인도양 루트’ 가시화.” Issues & Analysis, September 2013
- Cliff, Roger et al.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2007.
- CSBA. AirSea Battle Concept. 2010.
- Cole, Bernard D.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U.S. Naval Institute Press, 2010.
- Ehrhard, Thomas P., and Robert O. Work. Range, Persistence, Stealth, and Networking: The Case for a Carrier-Based Unmanned-Combat Air System.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08.
- Erickson, Andrew S. “China's Military Space Surge.” AEROSPACE AMERICA, March 2011.
- Glynn, Michael. “Examining Chinese Navy's Shenyang J-15 Fighter Jet's Ordnance and Fuel Capabilities.” The Aviationist, 2012년 12월 27일
- Hendrix, Henry J. (USN CAPT, PH.D.), “At What Cost Carrier?”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March 2013.
- Holmes, James R. et al. Chinese Naval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The Turn to Mahan, 2008.
- Kabay, M. E. US DoD Annual Estimates of Information Warfare Capabilities and Commitment of the PRC 2002-2009, 2009
- Maurer, John H. “A Rising Naval Challenger in Asia: Lessons from Britain and Japan between the Wars.” Orbis, Vol. 56, No. 4 (Fall 2012).

- O'Rourke, Ronald O.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2009.
- Peng Guangqian(彭光謙), and Yao Youzhi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 Stokes, Mark. China's Evolving Conventional Strategic Strike Capability, 2009.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 U.S. Office of the SECDEF (U.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09, 2010, 2011, 2012.
- U.S. ONI. China's Navy 2007, 2008.
- U.S. ONI.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연감, 연례보고서】

- IISS. Military Balance 2013.
- IISS. Jane's Fighting Ships 2012~2013.

【언론보도】

- | | |
|-------------------------------|-------------------------------|
| 『산케이신문』. 2010년 7월 27일. | 『중앙일보』. 2013년 9월 22일. |
| 연합뉴스. 2011년 11월 29일 | 『한계레』. 2005년 1월 29일. |
| 연합뉴스. 2013년 4월 28일. | 『한국일보』. 2011년 2월 5일. |
| 연합뉴스. 2013년 5월 2일. | 『한국일보』. 2013년 9월 25일. |
| 연합뉴스. 2013년 10월 13일, 10월 28일. | 대만중앙통신(CNA). 2013년 5월 2일. |
| 중국신문망. 2013년 9월 22일. | 『亞洲週刊』. 2012년 9월 16일. |
| 『중앙일보』. 2011년 1월 17일. | ChinaWatch. 2004년 12월 21일. |
| 『중앙일보』. 2012년 9월 29일 | Foreign Policy. 2013년 7월 27일. |

【인터넷 사이트】

- | | |
|---|--|
| www.en.wikipedia.org . | www.deagel.com . |
| www.ko.wikipedia.org/wiki/ . | US Navy Fact File. |
| http://blog.kiost.ac/90152126369 . | www.navy.mil/navydata/fact_display |
| www.globalsecurity.org . | . |
| www.harpoondatabases.com . | www.defenseindustrydaily.com . |

Abstract

PRC Maritime Operational Capability and the Task for the ROK Military

Kim Min - Seok *

Recent trends show that the PRC has stepped aside its “army-centered approach” and placed greater emphasis on its Navy and Air Force for a wider range of operations, thereby reducing its ground force and harnessing its economic power and military technology into naval development. A quantitative growth of the PLA Navy itself is no surprise as this is not a recent phenomenon. Now is the time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level of PRC naval force’s performance and the extent of its warfighting capacity in the maritime domain. It is also worth asking what China can do with its widening naval power foundation. In short, it is time to delve into several possible scenarios in which the PRC poses a real threat.

With this in mind, in Section Two the paper seeks to observe the construction progress of PRC’s naval power and its future prospects up to the year 2020, and categorize time frame according to its major force improvement trends. By analyzing qualitative improvements made over time, such as the scale of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ships compared to increase in displacement (tonnage),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salient features in the construction of naval power. Chapter Three sets out performance evaluation on each type of PRC naval ships as well as capabilities of the Navy, Air Force, the Second Artillery (i.e., strategic missile

* Navy Captain, Professor of Maritime Strategy, Naval War College at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and adjunctive professor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forces) and satellites that could support maritime warfare. Finally, the concluding chapter estimates the PRC's maritime warfighting capability as anticipated in respective conflict scenarios, and considers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es the directions ROK should steer in response.

First of all, since the 1980s the PRC navy has undergone transitions as the focus of its military strategic outlook shifted from ground warfare to maritime warfare, and within 30 years of its effort to construct naval power while greatly reducing the size of its ground forces, the PRC has succeeded in building its naval power next to the U.S.'s in the world in terms of number, with acquisition of an aircraft carrier, Chinese-version of the Aegis, submarines and so on. The PRC also enjoys great potentials to qualitatively develop its forces such as indigenous aircraft carriers, next-generation strategic submarines, next-generation destroyers and so forth, which is possible because the PRC has accumulated its independent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process of its 30-year-long efforts. Secondly, one could argue that ROK still has its chances of coping with the PRC in naval power since, despite its continuous efforts, many estimate that the PRC naval force is roughly ten or more years behind that of superpowers such as the U.S., on areas including radar detection capability, EW capability, C4I and data-link systems, doctrines on force employment as well as tactics, and such gap cannot be easily overcome.

The most probable scenarios involving the PRC in sea area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first, upon the outbreak of war in the peninsula, the PRC may pursue military intervention through sea, thereby undermining efforts of the ROK-U.S. combined operations; second, ROK-PRC or PRC-Japan conflicts over maritime jurisdiction or ownership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could inflict damage to ROK territorial sovereignty or economic gains. The PRC would likely attempt to resolve the conflict employing blitzkrieg tactics before U.S. forces arrive on the scene, while at the same time delaying and denying access of the incoming U.S. forces. If this proves unattainable, the PRC could take a course of action adopting "long-term attrition warfare," thus weakening its enemy's sustainability.

All in all, this paper makes three proposals on how the ROK should respond. First, modern warfare as well as the emergent future warfare demonstrates that the center stage of battle is no longer the domestic territory, but rather further away into the sea and space. In this respect, the ROKN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distinct feature of battle space on the peninsula, which is surrounded by the seas, and obtain capabilities to intercep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nemy's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those of North Korea. In tandem with this capacity, employment of a large scale of UAV/F Carrier for Kill Chain operations should enhance effectiveness. This is because conditions are more favorable to defend from sea, on matters concerning accuracy rates against enemy targets, minimized threat of friendly damage, and cost effectiveness. Second, to maintain readiness for a North Korean crisis where timely deployment of US forces is not possible, the ROKN ought to obtain capabilities to hold the enemy attack at bay while deterring PRC naval intervention. It is also argued that ROKN should strengthen its power so as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in the seas surrounding the peninsula without support from the USN, should ROK-PRC or ROK-Japan conflict arise concerning maritime jurisprudence. Third, the ROK should fortify infrastructures for independent construction of naval power and expand its R&D efforts, and for this purpose, the ROK should make the most of the advantages stemming from the ROK-U.S. alliance inducing active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The rationale behind this argument is that while it is strategically effective to rely on alliance or jump on the bandwagon, the ultimate goal is always to acquire an independent response capability as much as possible.

Key words: Chinese military strategy, Chinese naval strategy, Chinese naval modernization, maritime strategy, maritime security, Korean Peninsula security, regional security